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지카바이러스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태아의 선천성 이상, 특히 소두증 발생과의 관련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발생 국가에서의 지카바이러스 감염률이나 수직감염률, 태아 합병증(소두증, 태아사망 등) 발생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치료약이나 백신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임상정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결과들을 근거로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지카바이러스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일선에서 지카바이러스 관련 진료 및 상담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조 하에 작성하였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임신부 행동 수칙

---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 권고
- 여행 전 준비사항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 최신 발생국가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http://www.cdc.go.kr))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travelinfo.cdc.go.kr](http://travelinfo.cdc.go.kr))에서 지속 업데이트 중
  - 여행지가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인 경우 연기를 고려해 주세요.
  - 여행을 연기할 수 없을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 시 일반적 주의사항을 상담 받고 태아의 건강상태 체크해 주세요.
  - 모기 퇴치 제품(모기 기피제) 및 밝은 색의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준비해 주세요.
- 여행기간 중 주의사항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 야외 외출 시에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
  - 모기는 어두운 색에 더 많이 유인되므로 활동 시 가능한 밝은 색 옷을 착용해 주세요.
  -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얇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임신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전 주의사항 확인 필요
- 여행 후 주의사항
  - 귀국한 뒤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해 주세요.
    - ※ 기타 자세한 모기예방수칙 및 국내 허가된 모기기피제 현황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http://www.cdc.go.kr)) 내 지카바이러스 관련 페이지 참고

## I. 일반적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Q&A

1. 지카바이러스 감염의 잠복기는 얼마인가요?

→ 잠복기는 2-14일 입니다.

2. 지카바이러스 확진환자에서 보고된 선천성 기형은 무엇인가요?

→ 소두증, 뇌내 석회화(intracranial calcifications) 및 비정상적인 안구증상 (abnormal eye findings) 등이 보고되어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상기 기형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3.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어떤 검사로 확인하나요?

→ 바이러스검사 : 혈청 내 지카바이러스 RNA 검출(RT-PCR), 확진검사

- 바이러스혈증(viremia)이 있는 기간(증상발현 후 7일 이내)에 검사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음성으로 나올 수 있음

→ 혈청검사 : 의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재공지 예정

4. 모기로 인한 전파 외에 혈행성, 성접촉성 전파도 가능한가요?

→ 성접촉으로 전파된 경우가 보고된 바는 있으나 위험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여성 파트너가 임신의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다녀온 남성에게 1달간 콘돔 사용 등 차단법의 예방적 사용이 권고됩니다.

→ 혈액성 전파의 보고는 없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여행 후 1개월 내의 수혈을 금하고 있습니다.

## II. 가임기 여성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Q&A

1. 가임기 여성이 유행지역을 여행하고 온 경우, 임신은 얼마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 지카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내에 통상 1주일 정도 잠복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는 이로 인한 태아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발현의 잠복기가 최대 2주이므로 임신은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임은 콘돔 사용 등의 차단법이 추천됩니다.
2. 과거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추후 임신 시 소두증 아기의 출생과 영향이 있을까요?  
→ 지카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속에 약 1주일 정도 존재합니다. 혈액 내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태아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추후 임신 시 태아의 소두증 등 선천성기형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 III. 임신부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Q&A

1.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하고 온 임신부가 2주 내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떤 검사가 시행되나요?  
→ 임신부 혈청으로 바이러스 검사(RT-PCR)
  - 바이러스검사 양성인 경우: 태아초음파(소두증 또는 뇌내 석회화 여부확인), 양수천자
  - 바이러스검사 음성인 경우: 태아초음파 (이상소견 발견되면 양수천자)

2.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하고 온 임신부가 2주 내 증상이 없는 경우, 어떤 검사가 시행되나요?

→ 태아초음파 : 무증상인 경우 혈청 검사는 권고되지 않음

· 태아초음파 이상소견 (+) : 임신부 바이러스검사 및 양수천자 검사

· 태아초음파 이상소견 (-) : 주기적으로 초음파검사 시행하여 태아이상 소견 확인  
이상소견 발견되면 여행시기와 관계없이 임신부 바이러스검사 및 양수천자 검사

3. 양수천자의 태아감염 확진률은 얼마나 되나요?

→ 현재 태아감염에 대한 양수천자의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또한 양수에서 RT-PCR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고 하여 이것이 태아 기형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4. 임신 몇 주부터 양수천자가 가능한가요?

→ 양수천자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어도 임신 15주 이상에서 시행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임신부들에게는 검사 전에 양수천자의 이익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5. 임신 14주 이하의 양수천자가 제안 또는 고려되는 임신부에서 융모막검사(CVS)를 통한 검사는 시행될 수 없나요?

→ 현재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 융모막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출산 후에 신생아에서도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가요?

→ 임신 중 모체 또는 태아 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의 증거가 있는 경우, 신생아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태반과 탯줄의 병리학적 검사

- 동결 태반과 탯줄(frozen placental tissue and cord tissue) 바이러스(RT-PCR) 검사

7. 사산된 태아에서는 어떤 검사가 가능한가요?

→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 후 2주 내 증상이 있었거나 태아소두증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은 검사들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사산아 조직(탯줄과 태반 포함) 검사 : 바이러스(RT-PCR) 검사 및 면역학적 염색

8.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하고 난 후 수개월이 지난 경우, 검사가 필요한가요?

→ 전문가들은 증상이 없을 경우 검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flaviviruses(덴기 열, 황열 바이러스)와의 교차반응으로 인한 위양성율이 높으며, 항체양성의 결과가 태아에 끼치는 영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9. 임신 기간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거나, 소두증 등의 합병증에 취약한 주수가 있나요?

→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감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임신 주수에 따른 감염률 또는 합병증 발생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10. 소두증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소두증이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소두증의 정도와 비례하며, 다음과 같은 증상, 장애가 경증부터 생존을 위협하는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경련, 발달장애, 지체장애, 보행장애, 수유장애, 연하곤란,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 □ 최신 업데이트 내용 (2016.1.3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다. (2016.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 \*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 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 바이러스과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감염자 검체 접수 후 9시간 이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향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법 교육과 시약 배포를 준비 중이다.
  - \* 첫 양성 환자는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추가검사가 진행 되어 결과 확인이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음.

## □ 참고자료

- 질병관리 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안내문 제1판'
-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지카바이러스 홈페이지 (<http://www.cdc.gov/zika/>)
- 미국산부인과학회-미국모체태아의학회 권고안 (Practice Advisory: Interim Guidance for Care of Obstetric Patients During a Zika Virus Outbreak) (<https://www.acog.org/About-ACOG/News-Room/Practice-Advisories/Practice-Advisory-Interim-Guidance-for-Care-of-Obstetric-Patients-During-a-Zika-Virus-Outbreak>)